

「 약속의 땅을 향한 행복한 동행 」

다비드 · 하다스 · 담희 · 단아 · 도하 · 다온

샬롬! 지난 성탄절 어떻게 보냈는지요? 저희들은 이스라엘에서 이곳을 찾은 동역자들과 함께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을 볼 수 있어 참 행복했습니다. 체코에서 맞는 계절은 정말 겨울답습니다. 눈도 자주 내리고 날씨도 제법 춥습니다. 겨울이 겨울다운 경험을 참 오랜 만에 느껴보는 것 같습니다. 눈을 보니 아이들의 마음도 들떠 마냥 행복하기만 합니다. 어른들도 눈사람도 만들고 눈싸움도 하며 잠시 동심에 젖습니다. 비록 날씨는 춥지만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있어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 한해 되돌아보면 베풀어주신 은혜와 사랑이 참으로 크고 넘칩니다. 이 즈음하여 지난 1년의 시간을 잠시 되돌아보며 감사의 제목들을 떠올려봅니다. 2017년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지난 1년 저희들을 위해 마음으로 기도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마음을 담은 감사를 전합니다. 더불어 다가오는 2018년 새해 주 안에서 더욱 강건하며 매사에 형통하는 축복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Happy New Year”

■ 성탄의 계절, 가족 이야기

매년 12월이 되면 한국에서 소포가 오곤 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소포를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참 행복해 합니다. 매년 12월은 한국에서 받은 식품으로 더 풍성해집니다. 개인적으로 저희 가정에게 12월은 예수님 탄생(25일)과 더불어 두 자녀 ‘다온(10일)’, ‘도하(29일)’의 생일이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이 계절에 주께서 저희 가정에 두 자녀를 또한 하늘 소포로 보내주셨습니다. 모든 부모에게 있어 동일한 고백이겠지만 세상 제일가는 소중한 선물은 하나님 주신 ‘자녀’ 일 것입니다. 저희도 물론입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로운 자녀들..., 얼마 전 지인 가정에 방문해 아이들이 성탄 트리를 만들면서 예수님께 드릴 작자가 준비한 선물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아이들 중 한명이 집에 있는 십자가를 예수님 선물로 내려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잠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부담스러운 선물”, 아이가 가장 귀한 것이라 생각해서 무심코 드린 그 선물의 의미를 이미 알고 있을 ‘아기 예수님’ 하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리고 세상 가장 소중한 사랑을 우리 위해 내려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이 헤아려지지 않을 만큼 큰 사랑으로 이 계절 다가옵니다.

■ ‘예루살렘 신드롬(Syndrome)’

매스컴을 통해 여러분들도 이미 접하신 내용이겠지만 지난 12월 6일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선언함에 따라 지난 한달 이스라엘에서는 잦은 유혈충돌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내 미국 대사관을 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는 계획까지 발표된 것으로 야기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분쟁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후로 UN에서 예루살렘 선언에 대한 반대여론이 찬성을 넘어서 지금은 이스라엘 내에서의 충돌도 조금씩 진정되고 있는 듯합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또 죽었습니다.

평화의 도시라는 뜻을 가진 ‘예루살렘’이라는 의미가 무색하게 예루살렘은 하나의 신드롬(Syndrome)으로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피로 얼룩져 왔습니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눈물 흘리셨던 예수님의 눈물이 지금도 흐르고 있는 듯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눅19:41,42). 예루살렘의 상황을 보고 또 듣는 가운데 그 땅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계속 부어지고 또 주님처럼 눈물 흘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살이 고집스러운 죄인들의 불의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의 긍휼로만 채워질 수 있기를 바라며 이 땅 예루살렘의 평화와 온전한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 체증 유발자 ‘요나’를 품은 하나님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생활권 안에 들어가려 시도하고 있고 매주 유대인들이 자주 찾는 길목에 나가 유대인들을 관찰하고 또 기회가 되는대로 다가가 이야기를 나눠보지만 사람 경계하는 긴장된 모습의 유대인들을 자주 접하곤 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밖에 놓이게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내에서 살아가는 것과는 다른 또 다른 이유로 긴장감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대표되는 이유로 아직까지 남아 있는 반유대주의 정서로 인한 미움과 증오의 마음이 유럽 사회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낯선 이방인들의 접근을 경계하고 있는 그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유대인 지구 안에 있는 한 건물에는 두 개의 시계가 아래위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시계 그리고 또 하나는 유대인들의 시계, 유대인들의 시계 방향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돕니다. 그리고 큰 바늘과 작은 바늘의 역할도 서로 뒤바뀌어 있습니다. 분침은 시침으로, 시침은 분침으로 말이지요. 이러한 유대인들의 독특한 생활 패턴과 그들만의 전통이 유럽 내 주류 사회에 화석되지 못한 채 늘 이방인으로서 배척당해 왔습니다. 또한 가진 것이 없다고 주눅들지 않았고 반면 가진 것이 많아서 더욱 당당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며 표독스럽다 여겼습니다. 그들만의 세상에 갇혀 다른 사람들과 유대하지 못한 채 주류에 역류하듯 늘 자신들의 삶을 고집스럽게 고수해온 그들을 향해 어떤 이들은 배타적이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이러한 유대인들의 단단함이 사람들 사이에 불편함과 체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표면적인 정보, 경험에서 빚어진 이미지 그리고 선입견은 때로 고정관념으로 자리하게 되고 그 생각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을 향한 부름심을 받은 나는 그들을 대함에 있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때로 고민하게 됩니다. 그 답을 저는 ‘요나’를 다루고 계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열심에서 찾게 됩니다. 요나 안에 있는 그 마음이 아니라 그 요나를 통해 일하고 계신 주님이 요나와 니느웨 사람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고 계시는가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기인한 그 어떠한 이유로도 그들을 품고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기에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 선택된 그 민족을 대함에 있어 도저히 사랑할 만한 이유와 조건을 찾아보기 힘들 때에도 주님이 나를 어떻게 찾아와 품어 주셨는지를 떠올리며 다시 겸손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다비드 가족



눈 내리는 체코



체코를 찾은 이스라엘 식구들



한국에서 온 성탄 선물



세상의 시간 vs 유대인의 시간



유대인 지구에서



유대인 관광객들과 함께

「 기도제목 」

Jewish Cluster Ministry Team

1. 프라하 내에 유대인 공동체(메시아닉 유대인)들과의 만남과 섬김의 길이 열리도록
2. 유럽 내 디아스포라 유대인 사역 네트워크를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도 채워질 수 있도록
3. I*B와의 협력을 위한 사역과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종교비자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4. 베두원 사역(타마르 프로젝트)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현장 사역자들을 축복하시고 강건케 하소서
5. 요압 아저씨와 마야안 그리고 이브라힘 가정이 예수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소서
6.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세우고 그 일에 더욱 집중하는 JCMT 사역 그리고 사역자들 되게 하소서



※ 여러분의 기도제목을 보내주시면 이곳에서 저희도 함께 중보 하겠습니다.

「 후원정보 」

「 연락처 」

- 일반헌금: 다비드/하다스(담희, 단아, 도하, 다운)
- KEB 하나은행 : 181-04-01159-983
- 예금주: 침*해*선(정재석) / TEL : 02-3775-4471
- 목적헌금: 타마르/코리엘 프로젝트
- KEB 하나은행 : 990-007955-919
- 예금주: 침*해*선(정재석) / TEL : 02-3775-4471
- 1) 재정담당 : 최은섭 (010-5334-7856),
E-MAIL: 0903ces@naver.com
- 2) 문서담당 : 박은성 (010-3745-2025),
E-MAIL: mindlle-1@hanmail.net

- ※ 주 소 :
Rev. JAESUK JUNG
K Prelátům 60, Praha 6 – Předí Kopanina [734373],
Czech Republic
- ※ 체코 연락처 : +420 774 567 658
- 집전화 : 070-8632-0432
- E-MAIL: korielpro@gmail.com